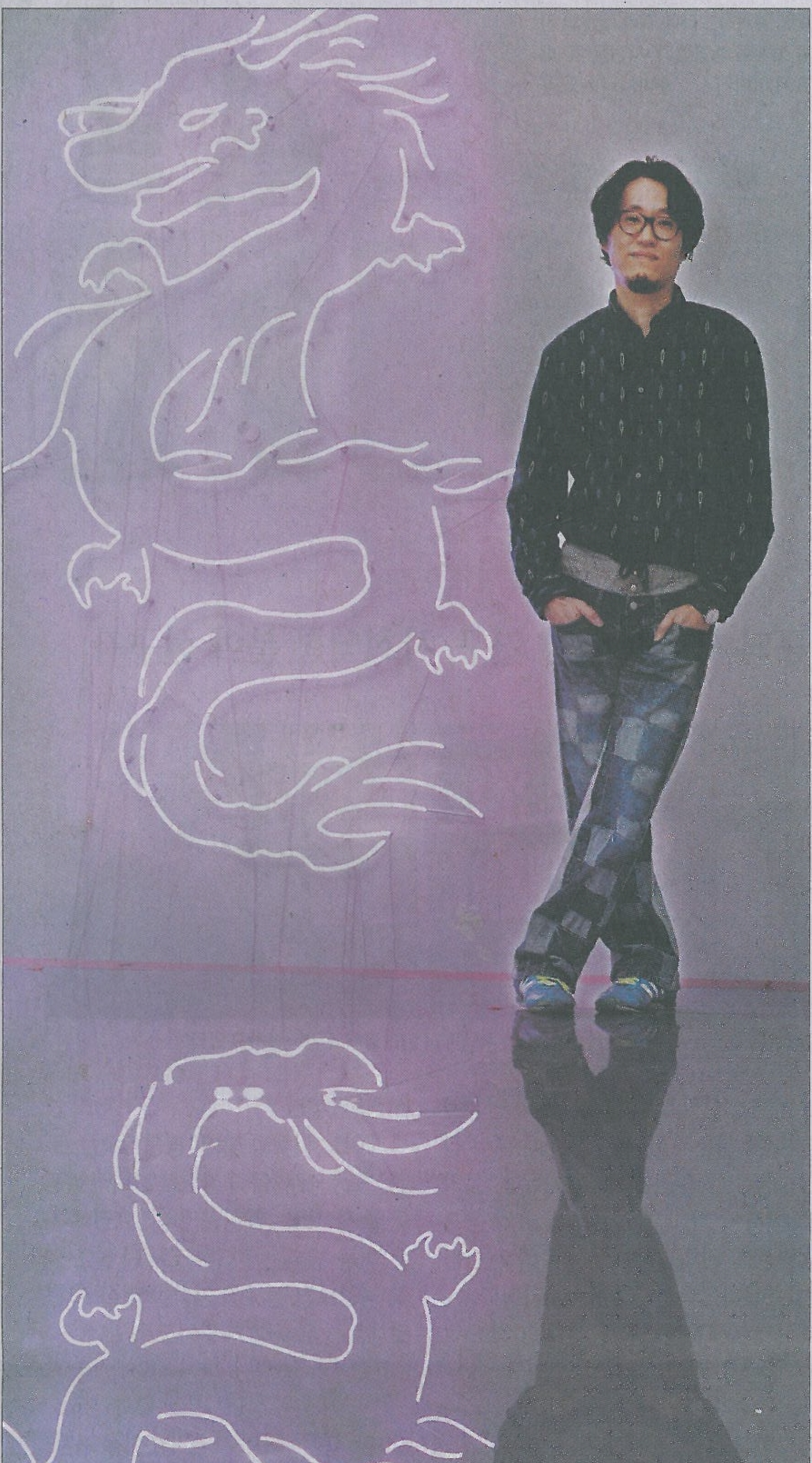
경향신문
2014.03.11
국제갤러리(주)

6년 만에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 개인전 여는 현대미술 작가 정연두

가상과 실재, 경계를 오가다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정연두 작가(45)의 대규모 개인전이 마련됐다.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라는 이름으로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13일 막을 올린다. 6년 만의 국내 개인전으로 2008년 이후 신작 2점을 처음 선보인다.

작품전에는 사진·영상·설치 등 50여점이 나온다. 신작 '베르길리우스의 통로' '크레용팝 스페셜'과 서울에서의 첫 작품이자 이후의 사진작업에 큰 영향을 미친 '영웅'(1998), 발표 때마다 주목받은 '상록타워'(2001) '도쿄 브랜드 시티'(2002) '식스포인츠'(2010) 등이다.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망라돼 작가의 독특한 작품세계와 작업과정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전시 개막을 앞두고 정연두 작가를 만났다.



신작 설치작품인 '크레용팝 스페셜'의 무대에 선 정연두 작가. 김기남 기자

–신작에 대한 기대가 크다.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는 플라토 상설 전시작인 로댕의 '지옥의 문'을 재해석했다. '지옥의 문'에 조각된 인간의 가장 근원적 형상 200여개를 실제 남녀 모델로 재현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합성한 사진조각으로, 첨단 3D영상기기인 오큘러스 리프트를 쓰고 감상한다. 상용화된 기기가 아니어서 화질이 낮아 안타깝다. 작년 일본에 머물 때 사진을 찍는 시각장애인을 만난 게 작업의 계기다. '크레용팝 스페셜'은 인기 걸그룹 크레용팝의 오늘을 있게 한 열성적 팬들('팝저씨')인 중년 남성들을 다룬 설치작이다. 단순히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삼촌팬'들과 달리 팝저씨들은 크레용팝이 무명일 때부터 응원·지원은 물론 스스로 무대 소품까지 만들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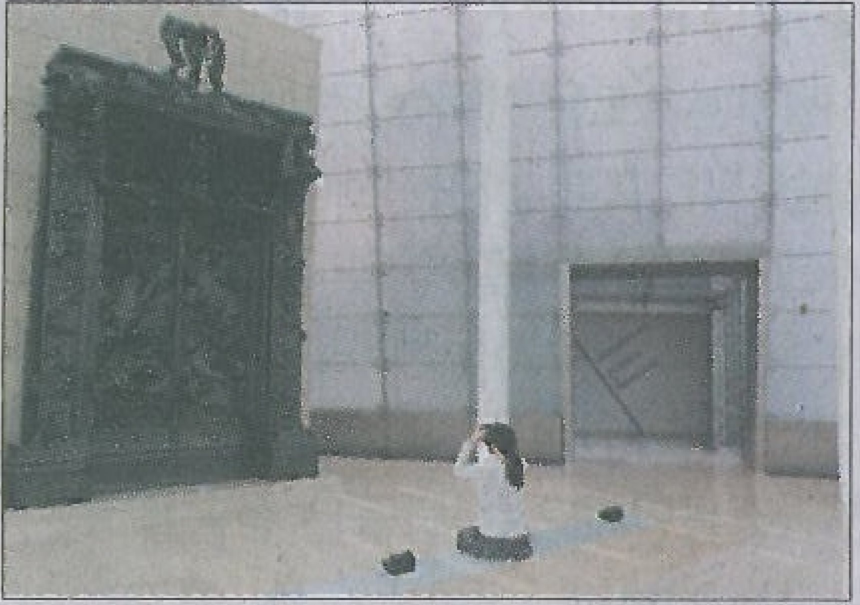
전시장 첫 머리에 놓인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는 인간의 근원적·본질적 모습은 물론 가상과 실재, 현실과 허구, 보는것과 보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킨다. 가상에 매몰돼 현실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실상이기도 하다. 반면 전시장 마지막의 '크레용팝 스페셜'은 화려한 조명의 무대, 팝저씨들의 동영상 등으로 구성돼 '베르길리우스의 통로'와는 달리 가볍고 시끌벅적하다.

–신작을 전시 동선의 처음과 끝에 놓았고, 그 중간에 옛 작품들을 배치했다.

"배치에 큰 신경을 썼다.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는 아주 무겁고 차분하다. 관람객이 보는 행위 자체도 작업의 하나다. 겉으론 비어있지만 사실은 온갖 인간군상이 가득찬 게 이 작품이라면, '크레용팝 스페셜'은 겉은 화려하지만 뭔가 비어있고 애잔하다. 극과 극의 중간에 다양한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배치했다. '식스포인츠'는 군중 속의 외로움을 담았고, '도쿄 브랜드 시티'에선 관객이 사진 속 유명 브랜드숍 직원의 눈과 마주치게 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봤다. '영웅'은 자장면 배달 청소년의 꿈을, '상록타워'는 가정의 획일성과 인류학적으로 해석해낼 거리를 담았다."

–출품작 모두 사람을 다루고 있다. 작품세계의 한 축이 사람에 대한 관심, 애정인데 이번 전시에서도 마찬가지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로 다양한 인간군상에 대한 내 나름의 시각을 담았다.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2014년을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람, 사회, 세상에 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람객들이 각각의 작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갖가지 감정의 변화를 체험하며, 나아가 자신을 반추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로댕의 조각품 '지옥의 문' 앞에서 첨단 영상기기를 쓰고 정연두의 가상의 조각작품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를 관람하는 모습.

정 작가는 "작품이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공유되고 그 의미를 부여받을 때 비로소 작품도, 예술가도 존재한다"며 "작가는 그저 하고 싶은 것을 진실하게 표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기존 작업들이 개인의 꿈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크레용팝 스페셜'은 사회적 발언이 담긴 듯하다.

"팝저씨들의 응원, 구호가 사회에 대한 절규, 외침으로 느껴진다. 사회구조와 K팝, 성공에 대한 열망 등이 묘하게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모습을 풀어내고 싶었다."

정 작가는 오는 11월 일본 미토의 미토아트타워에서 예정된 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원전과 관련된 작품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좀 더 사회성 짙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첨단기술도 적극 수용하는데 매체는 어떤 의미인가.

"내 생각을 담은 작품이 보는 이들에게 가장 공감을 잘 일으킬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할 뿐이다. '베르길리우스의 통로'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것도 현실과 환상의 대비 등 내가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 작가는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최연소 '올해의 작가', 2008년 뉴욕현대미술관 전시와 작품 소장, 2012년 미국 아트앤옥션의 '가장 소장 가치 있는 50인의 작가'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장료 2000~3000원, 6월8일까지. 1577-7595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